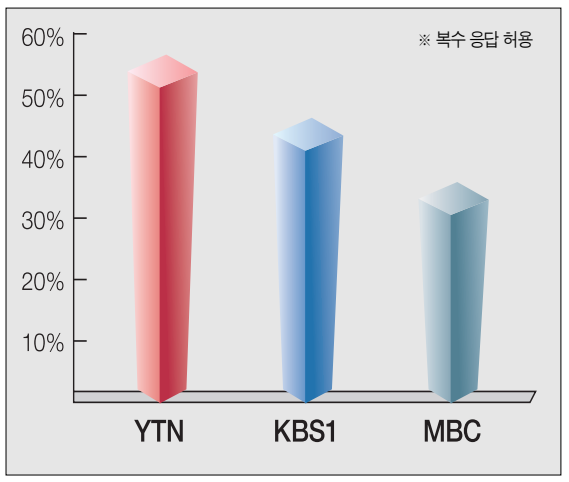
YTN 社報

• 발 행 : YTN • 편 집 : 홍보팀
• 대표전화 : 398-8000 • FAX : 398-8789
• 제 보 : 398-8282(빨리빨리) 398-8585(바로바로)
• 휴대폰 YTN뉴스 청취 : 200-2424

2003년 9월 22일 | www.ytn.co.kr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85-1 | 제 43호

사건사고뉴스 YTN 선호도 1위

오피니언 리더 55% 큰 사건사고 발생시 YTN 뉴스 본다.



큰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오피니언 리더의 55.1%가 YTN뉴스를 시청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표).

시청률 조사회사인 TNS 미디어 코리아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피니언 리더의 경우 주요 사건, 사고가 났을 때 55.1%가 YTN을 시청하며 KBS1 TV는 45.3%, MBC 35.5%의 순으로 조사됐다.

정부정책과 정치관련 뉴스에 대해서는 오피니언 리더의 65.6%가 KBS1을 시청한다고 답변해 1위를 차지했고, MBC가 39.1%, YTN이 34.8%로 각각 2,3위를 기록했다.

경제관련 뉴스는 오피니어 리더그룹의 경우 KBS1이 42.9%로 가장 높았고 , YTN은 32.9%로 2위를 그리고 MBC가 31.6%로 그 뒤를 이었다,

일반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정치관련 뉴스의 경우 MBC (56,6%), KBS1 (45.9%), YTN (21.3%) 순이며, 경제관련 뉴스도 MBC (44,8%), KBS1 (32.9%), YTN (24.1%), 주요사건, 사고뉴스는 MBC (52,6%), KBS1 (33.0%), YTN (28.9%)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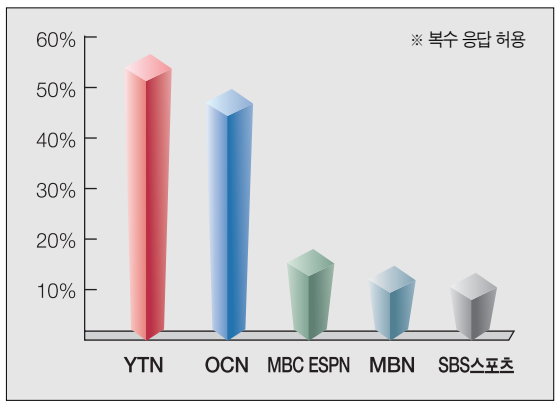
주로 어느 채널을 통해 뉴스를 시청하는가 하는 질문에 오피니언 리더의 경우 KBS1(69.7%)에 이어 YTN(56.9%)이 2위를 확보해 지상파 뉴스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 높은 채널임이 확인됐다.

(MBC 44.7%, SBS 29.6%, KBS2 4.3%, MBN 4.3%, 한국경제TV 1.6%, ITV 0.3%)

반면 일반 직장 종사자의 경우는 MBC가 63.9%로 가장 높았으며, KBS1 45.8%, YTN 34.2% 순이었다. (이어서 SBS 29.7%, KBS2 6.2%, MBN 2.6%, 한국경제TV 1.7%, ITV 0.6%)

직장인대상 케이블 채널 선호도 1위

오피니언 리더층 73.4% YTN 선호



케이블 채널 선호도에 있어서는 오피니언 리더를 포함해 전체 직장인의 54.2%가 YTN을 즐겨 시청하는 채널의 하나로 꼽아, YTN이 케이블 채널 가운데 가장 선호도가 높은 채널로 밝혀졌다 (도표).

이어서 OCN이 49.2%로 2위를 차지했고, MBC ESPN 17.0%, MBN 13.2%, SBS스포츠 12.1%, 바둑TV 10.0%, 한국경제TV 6.8% 등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오피니언 리더의 경우 73.4%가 YTN을 즐겨 시청하는 것으로 조사돼 YTN이 오피니언 그룹이 가장 선호하는 채널임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일반직장인의 경우는 OCN이 54.0%로 1위를 차지했으며 YTN은 45.9%로 2위를 차지했다.

이와함께 YTN과 같은 뉴스 전문 라디오 방송에 대한 기대정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상인 56.2%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며, 특히 오피니언 리더의 경우 63.1%가 전문 뉴스 라디오 방송에 대한 기대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번조사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장급이상, 관공서 국장급이상, 국회의원, 변호사 등 오피니언 리더 300명과 일반직장인 700명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일부터 8월14일까지 2주일동안 1대1 개별면접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유의 수준에서 ±3.1% .

가을 편성 개편 시행

10월 6일부터, 낮 뉴스 강화

10월 6일부터 시행될 이번 개편은 내년 3월 신 사옥 이전을 계기로 한 '제2 창사'를 앞두고 '24시간 뉴스 채널'의 편성 기틀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특히 낮 시간대 뉴스 강화에 편성 개편의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달 굿모닝 코리아 5부를 50분으로 늘려 아침뉴스를 확대한데 이어 이번 개편에서는 오전 10시와 오후 4시 뉴스가 각각 37분과 52분으로 늘어난다.

오전 10시와 오후 4시대가 강화됨으로써 이미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뉴스 퍼레이드, 뉴스의 현장 등 인접한 특화뉴스들과 함께 낮 시간대의 뉴스가 한층 탄탄해지게 된다. 확대된 뉴스 시간에는 경제 섹션이 신설돼 보다 많은 경제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 기존 밤 9시대의 뉴스포커스를 폐지하는 대신 밤 8시 뉴스가 매거진 형태로 늘어나게 된다.

제작 프로그램들에 있어서는 시청자들의 관심 뉴스나 생활 관련 컨텐츠를 집중 개발해 시사성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백지연의 정보특종과 생방송 박찬숙의 쟁점토론은 초방 시간을 현재 오전 10시대에서 오후 3시대로 옮기고 방송 횟수를 1회씩 줄였다.

주말 프로그램들도 새로 단장돼 시청자를 찾아간다. 튜닝과 신차 소개, 자가 정비 등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루는 '(가제) 클릭! 자동차 생활' 이 신설돼 주말에 4회 방송된다.

또 영화정보 프로그램인 '씨네버스'는 '씨네24'로 타이틀이 바뀌고 새 여성 MC 최은지씨가 진행을 맡아 새로운 분위기로 개편된다. 여성 전문 매거진 '뷰티플 라이프'도 양지혜씨가 새로 진행을 맡아 분위기를 쇄신할 방침이다.

9월호 HEAD LINE

|2| ▶ 사옥 이전 실무작업 본격화 / YTN 단신
|3| ▶ YTN 뉴스 시청 행태 조사
|4| ▶ 특종상 금상 수상기 - 발 빠른 제보와 대응
▶ 뉴욕 정전사태 취재기 - BLACKOUT AMERICA
|5| ▶ 해외연수기 - 과학적 분석과 장점 키우기로 생산성 향상을
▶ 해외연수기 - '공부하는 저널리스트' 필요성 절감
|6| ▶ 중국 사업 진출기 - 베이징 기자회견 쇼 ?
▶ 시청행태 조사후기 - 설문에 응해주신 분 께 감사
|7| ▶ 백지연이 만나면 특종이 된다?
▶ 자랑스런 YTN 사우 - 김 진 호 뉴스 그래픽팀
|8| ▶ 프로그램 탐방 - 밤 11시 45분 '스포츠 뉴스'
▶ 대구 U대회 취재기 - 당당한 YTN의 위력!

사옥 이전 실무작업 본격화

YTN 제2의 도약의 밑거름이 될 사옥 이전 준비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사옥 추진위는 지난 8월 19일 사내 설명회를 통해 사옥의 구매 과정과 방식, 향후 이전 계획 등을 사원들에게 공개했다. 실무팀도 곧바로 가동에 들어갔다. 실무팀은 부문별 사내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돼 사옥 이전의 실무를 전담한다. 실무팀은 크게 사옥 이전 전반의 자금, 행정 업무를 담당할 〈구매/자금/행정팀〉과 방송 시설의 도입과 설치를 책임질 〈장비도입팀〉 〈방송시설팀〉, 그리고 방송 시설을 제외한 사무 공간을 확정하기 위한 〈공간 설계팀〉으로 짜여졌다. 여기에 신사옥의 CI를 담당할 〈CI팀〉도 가동됐다.

장비도입팀은 현재 디지털 시스템 구축을 전제로 장비 도입의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고, 일본 TBS 등의 외국 시설 견학을 위한 출장을 진행하고 있다. 방송 시설팀도 20층 스튜디오와 부조 등의 시설 공간을 확정했다. 20층의 스튜디오 등 방송 시설은 사옥 추진위의 확정 절차를 거쳐 현재 시설 공사에 들어간 상태. 공간 설계팀은 17층에서 19층까지의 사무 공간과 시설 공간의 배치 실무 작업을 벌이고 있다. 각 국실의 요구를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팀이 참여해 구체적인 공간 설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공간 개요가 확정되면 설계, 시공사에 대한 외부 공모가 실시된다. CI팀 역시 실무팀 구성과 함께 사원 의견 조사와 전문가팀 섭외 등의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추진위는 또 사원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사옥의 이름을 공모하고, 실무위 활동에 사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문호를 열어두고 있다. 현재 신사옥의 이름을 놓고 "YTN 뉴스 센터"를 비롯한 10여개의 제안이 들어온 상태. 다만 실무위원회에 참여할 자발적인 사원 참여가 적은 게 옥에 티. 추진위는 YTN의 지난 10여년 동안의 발자취를 모으는 "그때 그 사진을 찾습니다"를 비롯한 다양한 사원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해 사원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낼 계획이다.

신사옥은 올 12월 준공을 목표로 내부 공사가 한창이다. 특히 본사가 사용할 17층에서 20층까지는 방송 시설 입주에 대비한 보강 공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사옥의 전체 공정률은 80% 정도다.

YTN 단신

기구 개편

회사는 8월 20일 DMB 추진 등 신규사업과 사옥추진의 활성화를 위해 기구를 개편했다. 「전략기획팀」을 「전략기획국」으로 승격하고 전략기획국내에 「DMB추진팀」, 「중국사업팀」, 「사옥추진팀」을 신설했다.

나노코리아 2003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가 주최하고 YTN 등 10개 기관이 주관하는 '제1회 국제나노산업전시회 및 심포지엄(나노코리아 2003)'이 8월 27일 개막돼 30일 까지 삼성동 코엑스1층에서 열렸다.

'나노코리아 2003'은 나노소자, 나노소재, 나노바이오, 나노분석 측정기술 및 기기, 대학관 등 5개 분야의 전시회와 기술 심포지엄으로 이뤄져 우리나라 나노기술의 현황과 국제적 동향 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

■ 타워소식

지상 최고의 스턴트 묘기, 서울타워 전망대에서

서울타워 노천전망대 4층에서 스턴트맨 앙리(Henri, 72세)가 선 보인 스턴트 묘기.

서울타워 전망대에서 세계 최고의 스턴트 묘기가 펼쳐졌다.

해발 380m 상공이자 서울의 대표적 상징탑인 서울타워에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 넘는 인간' 앙리(Henri, 72세)가 보여주는 스턴트는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두개의 의자위에 앉아 균형을 유지하는 묘기이다. 8월 12일 청명한 날씨와 대조적으로 바람은 강하게 불어 보는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이번 묘기는 SBS '이문세의 사이언스 파크' 프로그램의 초청으로 이루어 졌고 8월 24일 방송됐다.

■ 5회 YTN 대학생 영상공모전

최우수작품상 '아버지의 울림, 북'

제5회 YTN 대학생 영상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9월 19일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고광남 YTN 미디어국 이사와 한현규 경기도정무부지사, 수상 대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경기도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생활속의 환경], [잊혀지는 기억들] 등을 주제로 한 이번 공모전에서는 최우수작품상에 홍익대학교 김영섭, 정재헌 등이 출품한 '아버지의 울림, 북'이 선정돼 상장과 800만원의 상금을 받는 등 모두 5개 작품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들은 '시청자의 눈' 시간에 매주 1편씩 차례로 방영된다.

YTN 사보를 YTN 홈페이지(www.ytn.co.kr)에서 pdf파일로 볼 수 있다. 사보 39호(2003.4월)부터 홈페이지 중앙 하단에 있는 YTN 알림마당에 있다.

게 시 판

■ 포 상

특종상 금상 김승재(사회1부), 박관우(영상취재부) 정몽헌 회장 투신자살 사건 보도

특종상 은상 임종주 · 황보연(부산지국) 대구 U-대회 북측선수단 입국취소와 도착 보도

특종상 동상 장민수(경제부) 국민은행, 굿모닝시티에 168억 차명대출

우수프로그램상 이재철 차장대우(방송심의부), 한원상(영상취재부) 특별기획「T.K생은 말한다」
임종렬 차장대우(제작1팀) 생방송『박찬숙의 쟁점토론』 ····· 9. 1

■ 전보

김명숙 편집3팀
신경희 편집2팀 ····· 8. 18字
박윤순 전략기획국장
박성호 DMB추진팀장
윤종수 중국사업팀장
이귀영 사옥추진팀장 ····· 8. 20字

■ 부음

최상섭(제작기술부) 빙부상 ····· 9. 17

■ 출산

채문석 득남 ····· 9. 6

■ 결혼

김진국(제작기술부) ····· 8. 16
김호준(편집2팀) ····· 8. 29
서승철(제주지국) ····· 9. 14

YTN 뉴스 시청 행태 조사 - TNS 미디어 코리아 분석

케이블 채널 선호도 분석

YTN, 전체 직장인 케이블 채널 선호도에 있어서 단연 1위를 차지함. 오피니언 리더를 포함한 전체 직장인의 절반 이상(54.2%)이 즐겨 시청하는 채널의 하나로 YTN을 꼽아, YTN이 케이블 채널 중 가장 선호도가 높은 채널로 나타났음. 상위 10위 내에는 YTN이나 MBN, 한국경제TV 등 경제, 뉴스 전문 채널과 OCN 등 영화채널, 그리고 스포츠, 골프, 바둑 등 남성적인 취미생활과 관련된 채널이 포함됨.

전 체			
순 위	채 널	응답수	비 율
1	YTN	515	54.2%
2	OCN	468	49.2%
3	MBC ESPN	162	17.0%
4	MBN	126	13.2%
5	SBS 스포츠	115	12.1%
6	SBS 골프	98	10.3%
7	바둑 TV	95	10.0%
8	MBC 드라마넷	67	7.0%
9	한국경제 TV	65	6.8%
10	HOME CGV	48	5.0%

※ 3개 채널 범위 내 복수 응답 허용

■ 오피니언 리더와 일반 직장인 그룹 채널 선호도 비교

오피니언 리더 그룹의 경우, 오피니언 리더의 73.4%가 YTN을 즐겨 시청하는 채널로 꼽아, YTN이 오피니언 리더 그룹이 가장 선호하는 채널임이 확연하게 드러남.

오피니언 리더 그룹이 선호하는 채널 순위는 YTN, OCN, SBS골프 순이었고, 상위 10위 내에 MBN, 한국경제TV 등의 뉴스,경제 채널, 골프,바둑 등 취미채널, 스포츠 채널과 교양 채널이 포함되어 있음.

일반 직장인은 OCN, YTN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 직장인의 경우에도 스포츠 채널과 뉴스 경제 채널을 즐겨 본다고 답변함. 다만, 오피니언 리더와는 달리 교양 채널이 10위 내에는 없었고, 대신 드라마 영화채널과 m.net 등 음악채널이 올라 있음.

오피니언 리더			
순 위	채 널	응답수	비 율
1	YTN	210	73.4%
2	OCN	109	38.1%
3	SBS 골프	70	24.5%
4	MBN	60	21.0%
5	바둑 TV	45	15.7%
6	MBC ESPN	30	10.5%
7	한국경제 TV	23	8.0%
8	SBS 스포츠	20	7.0%
9	내셔널지오그래픽	16	5.6%
10	디스커버리	14	4.9%

일반 직장인			
순 위	채 널	응답수	비 율
1	OCN	359	54.0%
2	YTN	305	45.9%
3	MBC ESPN	132	19.8%
4	SBS 스포츠	95	14.3%
5	MBN	66	9.9%
6	MBC 드라마넷	64	9.6%
7	바둑 TV	50	7.5%
8	한국경제 TV	42	6.3%
9	HOME CGV	37	5.6%
10	m.net	34	5.1%

※ 3개 채널 범위 내 복수 응답 허용

뉴스 시청 채널

주로 어느 채널을 통해 뉴스를 시청하는가 하는 질문에 오피니언 리더는 KBS1을 1순위로 꼽았음. YTN은 2위로 나타나, 지상파 뉴스 채널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음.

반면, 일반 종사자의 경우 MBC가 가장 높았으며, KBS1, YTN 순이었음.

오피니언 리더			
순 위	채 널	응답수	비 율
1	KBS1	209	69.7%
2	YTN	171	56.9%
3	MBC	134	44.7%
4	SBS	89	29.6%
5	KBS2	13	4.3%
6	MBN	13	4.3%
7	한국경제 TV	5	1.6%
8	iTV	1	0.3%

일반 직장인			
순 위	채 널	응답수	비 율
1	MBC	447	63.9%
2	KBS1	320	45.8%
3	YTN	239	34.2%
4	SBS	208	29.7%
5	KBS2	44	6.2%
6	MBN	18	2.6%
7	한국경제 TV	12	1.7%
8	iTV	4	0.6%

※ 복수 응답 허용

뉴스 분야별 주시청 채널 분석

오피니언 리더는 정부 정책/정치 관련 뉴스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KBS1을 주로 시청하는 반면, 기동력과 신속한 전달이 요구되는 주요 사건/사고 뉴스는 YTN을 주로 시청한다고 답변함.

경제 관련 뉴스는 기업이나 관공서는 KBS1을, 그리고 금융기관과 국회의원은 YTN을 본다고 답변하였음.

정부 정책 / 정치 관련 뉴스 — 오피니언 리더

순위	채 널	Total	기 업	관공서	국 회	금 융	전문직
1	KBS1	65.6%	66.3%	85.0%	62.5%	58.4%	50.0%
2	MBC	39.1%	41.9%	28.3%	43.8%	49.4%	18.8%
3	YTN	34.8%	24.4%	55.0%	65.6%	21.3%	31.3%

경제 관련 뉴스 — 오피니언 리더

순위	채 널	Total	기 업	관공서	국 회	금 융	전문직
1	KBS1	42.9%	43.3%	61.7%	34.4%	34.1%	38.7%
2	YTN	32.9%	26.7%	40.0%	43.8%	35.2%	19.4%
3	MBC	31.6%	30.0%	33.3%	34.4%	34.1%	22.6%

주요 사건, 사고 뉴스 — 오피니언 리더

순위	채 널	Total	기 업	관공서	국 회	금 융	전문직
1	YTN	55.1%	54.0%	79.7%	71.9%	40.2%	35.5%
2	KBS1	45.3%	46.0%	50.8%	46.9%	41.4%	41.9%
3	MBC	35.5%	32.2%	20.3%	43.8%	49.4%	25.8%

정부 정책 / 정치 관련 뉴스 — 일반 직장인

순위	채 널	Total	기 업	관공서	금 융	전문직	공공장소
1	MBC	56.6%	57.0%	54.5%	57.9%	53.3%	57.8%
2	KBS1	45.9%	43.5%	49.4%	48.0%	53.3%	38.5%
3	YTN	21.3%	20.0%	22.4%	18.8%	24.4%	25.7%

경제 관련 뉴스 — 일반 직장인

순위	채 널	Total	기 업	관공서	금 융	전문직	공공장소
1	MBC	44.8%	47.7%	38.3%	45.0%	51.1%	45.3%
2	KBS1	32.9%	32.2%	37.0%	37.1%	26.7%	22.6%
3	YTN	24.1%	23.1%	22.1%	25.7%	26.7%	24.5%

주요 사건, 사고 뉴스 — 일반 직장인

순위	채 널	Total	기 업	관공서	금 융	전문직	공공장소
1	MBC	52.6%	56.0%	45.8%	50.7%	48.9%	61.1%
2	KBS1	33.0%	30.0%	36.1%	37.1%	33.3%	25.9%
3	YTN	28.9%	26.0%	34.2%	32.2%	31.1%	19.4%

※ 복수 응답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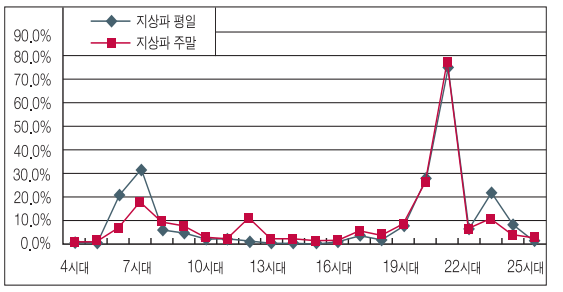
뉴스 시청 시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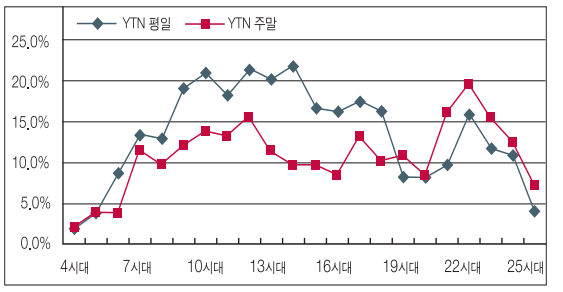
■ 오피니언 리더 뉴스 시청 시간대

오피니언 리더의 뉴스 주시청 시간대는 평일은 오전 6시-8시대, 밤 21시대, 밤 23시대였음. 주말은 오전 8시대, 오후 13시대, 밤 21시대가 주시청 시간대였음.

반면, YTN의 주시청 시간대는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15시대, 그리고 밤 22시대였음. YTN의 주말 시청 시간대는 각 시간대 골고루 분산되어 있으며, 밤 22시대 다소 시청량이 많아짐.

오피니언 리더의 경우, 뉴스를 찾아 시청하는 경향을 보임. 주시청 시간대는 지상파와 YTN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상파와 YTN이 상호 보완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YTN과 같은 뉴스 전문 라디오방송에 대한 기대 정도

YTN과 같은 뉴스 전문 라디오 방송이 있다면 청취 의향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6.2%가 긍정적으로 답변했음.

특히 오피니언 리더의 경우에는 63.1%가 그렇다고 답변을 했으며, "매우 그렇다"는 답변도 22.3%에 이르러 오피니언 리더의 뉴스 전문 라디오 방송에 대한 기대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일반 직장인의 경우에는 53.5%가 긍정적으로 응답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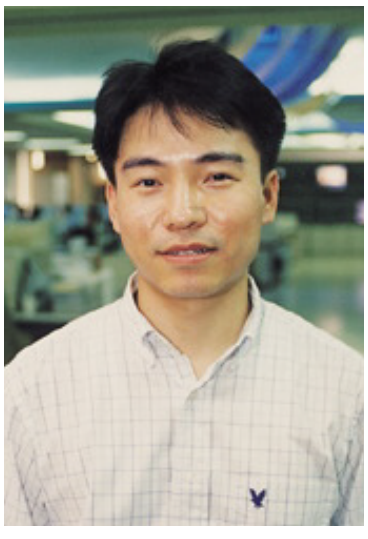
전 체		
	응답자	비 율
매우 그렇다	168	16.9%
대체로 그렇다	390	39.3%
보통이다	275	27.7%
대체로 그렇지 않다	136	13.7%
절대 그렇지 않다	24	2.4%
합계	993	100.0%

오피니언 리더		
	응답자	비 율
매우 그렇다	63	22.3%
대체로 그렇다	115	40.8%
보통이다	58	20.6%
대체로 그렇지 않다	38	13.5%
절대 그렇지 않다	8	2.8%
합계	282	100.0%

일반 직장인		
	응답자	비 율
매우 그렇다	105	14.8%
대체로 그렇다	275	38.7%
보통이다	217	30.5%
대체로 그렇지 않다	98	13.8%
절대 그렇지 않다	16	2.3%
합계	711	100.0%

특종상 금상 수상기 - 정몽헌 회장 투신자살

발 빠른 제보와 대응



김 승 재 (사회1부)

8월 4일 월요일 아침. 일주일의 시작이 버거운 아침이었다. 수습 보고를 받은 뒤 시경캡에게 보고 준비를 할 시각이었다. 6시 45분에서 50분 사이쯤 됐을까? 핸드폰 벨이 울렸다.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모 인사였다.

대뜸 믿기 어려운 말을 했다.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이 투신자살한 거 같다는 것이다. 깜짝 놀랐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일단 곧바로 당시 사회부 야근자인 임장혁씨에게 전화를 했다. 빨리 확인해 보라며. 이어 김종균 시경 캡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줬다.

경찰기자들은 이때부터 대기상태에 들어간 셈이다. 이어 계동 사옥 관할인 종로경찰서 상황실로 전화해 취재에 들어갔다. 상황실 부실장은 투신자살인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정몽헌 회장이 사망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확인 즉시 사회부로 전화를 걸어 긴급문발을 띄울 것을 요청하고 시경 캡에게도 보고했다.

하지만 TV를 뚫어지게 쳐다봐도 기사는 나오지 않고 있었다. 내용이 워낙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리라. 사실 확인을 문의하는 전화도 걸려왔다. 7시 1분. 마침내 유현주 앵커가 1보를 정확히 전했다.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이 투신자살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는 내용을 또박 또박 두 번 읽었다. 이후 긴급문발은 7시 3분에 떴다. 당시는 신보도정보시스템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두들 업무에 익숙하지 못했으리라.

연합뉴스는 7시 3분대에 기사가 떴다. 연합뉴스보다 2분 가까이 빨랐던 셈이다. 1보가 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순간 불안이 엄습했다. MBC의 빌 게이츠 오보가 떠오르고 조선일보의 김일성 사망 오보 기사도 떠오르는 것이었다. 혹시 오보라면 어찌 되나? 모든 책임을 다 내가 질 상황이었다.

불안한 마음에 다시 취재에 들어갔다. 하지만 종로서 상황실 부실장을 통해 좀더 자세한 내용을 취재할 수 있었다. 사망자는 정몽헌 회장이 확실하고 시신은 계동 사옥 건물 뒤편에 그대로 보존돼 있고 신고자의 신고로 확인했다는 등 새로운 소식이 속속 취재됐다. 일단 오보는 확실하게 아니구나 한숨을 쉰 뒤 추가 사항을 편집부로 알려줬다.

이후 지상파 3사에서 뒤늦게 긴급 문발을 띄우며 따라오는 모습을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이번 보도가 YTN에서 최초로 나갈 수 있었고 또 신속히 특보 체제로 꾸려질 수 있었던 데는 무엇보다 당시 사회부 당직자와 편집팀의 공통된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사회부 야근자인 임장혁씨와 이병식씨 그리고 뉴스 편집부 김흥규 팀장과 현덕수, 유현주 앵커 등 여러 분들의 발 빠른 대응이 없었다면 특종도 특보 체제도 힘들었다고 본다. 특히 신보도 정보시스템 도입이 막 시작된 때라 비상 상황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 빠른 대응을 보여준 뉴스편집팀원들의 도움이 매우 컸다고 본다.

역시 무엇보다도 감사드릴 분은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해 주신 분이다. 신분을 밝힐 순 없지만 당시 매우 중요한 정보를 내게 제공해 주신 '그 분'께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특종은 우연히 갑자기 온다던데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정말 그걸 실감했다.

뉴욕 정전사태 취재기

BLACKOUT AMERICA

안 치 용 (뉴욕통신원)

뉴욕시간 8월 14일 오후 4시 15분

빵빵?빵빵--. 사거리가 엉망이다. '이런 또 신호등이 나갔군'. '어 이 사거리도 신호등이 나갔네'. 앵앵--, 앵앵-- 머리가 쭈뼛할 정도로 요란한 사이렌소리. 경찰차가 달려간다. 앰블런스도, 소방차도. 어렵소 사복경찰까지 자기 차에 경광등을 올리고 어디론가 쏜살같이 달린다. '뭔가 이상하다'

미국과 캐나다 5천여 만 명을 짧게는 18시간, 길게는 3-4일 동안 불안에 떨게 했던 대규모 정전사태는 이렇게 시작됐다. 차를 세우고 라디오를 틀었다. '1010WINS'가 안나온다 교포방송으로 주파수를 돌렸다 전혀 방송이 잡히지 않는다. 모든 라디오방송이 한꺼번에 끊겼다. '아 이럴 수가!! 뭔가 터졌다'. '아 테러인가'

핸드폰이 '삐리리'. 맨해튼에 사는 집사람 친구다. 맨해튼도 불이 나가고 엘리베이터가 멈췄단다. 놀란 사람들이 영문을 몰라 거리로 뛰쳐나온단다.

YTN에 연락을 할까 말까? 4시40분께 다시 '1010WINS'가 잡힌다. 뉴욕 주 전 지역과 기타 동부지역, 그리고 범위조차 알 수 없는 광범위한 지역이 정전이며 테러여부를 파악중이라고 반복한다. '확실하구나'.

전기가 나갔다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지하철도 못 다닌다 전화도 안된다 핸드폰도 됐다가 안됐다가.--대혼란!!!!!!!.

핸드폰으로 서울에 전화를 했다. 오후 4시 45분께. 상황을 파악해보겠으니 계속 전화연락을 하란다. 5시 5분쯤 다시 전화했을 때 즉시 생(?)으로 전화를 물리란다. 기분 좋은 정도의 긴장, 초조, 흥분이 온몸을 적신다. 나의 몸에서 마치 고기비늘처럼 떨어져 나갔던 단어들 '날방송' '긴박' 등이 머리에 꽂힌다.

YTN에서 다년간 전화연결 '보조'(?)를 했건만 연결번호가 생각나지 않는다. 방송 안한지 벌써 4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속에 핸드폰을 잡았다. 끊겼다 나왔다하는 라디오를 튼 채 차안에서 상황을 전했다. 거리표정을 스케치하고 블룸버그시장의 기자회견소식도 전한 것 같다. 하지만 여수 앞바다 유조선 기름유출사건 때 전화연결 중에 '뭐시여, 아 글씨 와이티엔이 뭐시여' 하시던 소리도 '이장' 아저씨만큼이나 허부적(?) 됐던 것 같다

5시, 5시 반 두 번 방송을 한 뒤 다음 연결이 있는지 체크하려는데 핸드폰이 먹통이다. 유선전화에 이어 무선전화도 마비. 어떻게 한다. 공중전화를 들었다. 역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맨해튼 쪽으로 최대한 빨리 가보자. 액셀을 밟았다. 라디오는 여전히 오락가락. 슈퍼마켓과 주유소등 대부분의 상가가 문을 닫은 지 오래. 일부 가게에는 초와 건전지 그리고 물과 빵 등을 사려는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른다. 멀고도 험한 맨해튼 가는 길. 테러를 우려해 맨해튼 진입 주요교량과 해저터널을 각각 1차선씩만 남긴 채 일찌감치 통제했기 때문이다.

6시, 6시 반은 놓치고 6시40분쯤 공중전화로 7시 방송이 있음을 확인하고 다시 맨해튼으로 달렸다. 6시57분, 방송 3분전 맨해튼 도착. 이름도 모르는 호텔로 뛰어들었다. 공중전화를 찾았다. 지하에 있단다. 죽자 사자 뛰어 내려가 전화를 잡았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 악! 공중전화도 되는 게 있고 안되는 게 있군. 다시 1층 로비로 달렸다. 백 미터 19초에 뛰는 놈이…. 프론트 전화도 죽었다. 다시 시동을 걸고 공중전화를 찾아 달렸다.

7시정각에 2백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공중전화를 발견. 뚜우뚜 뚜우뚜. 연결됐다. 휴우 한숨 돌릴 겨를도 없이 앵커가 부른다. 테러라는 증거가 없고 순간적인 전력사용량 급증에 따른 정전 쪽으로 원인을 정리하며 놀란 사람들로 가득 찬 맨해튼 표정을 전하고 끝냈다.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정신이 하나도 없다. 7시 전화연결 때 아픈 기억(?)때문에 이번에는 일치감치 공중전화 사수작전에 돌입, 그러나 공중전화는 지켜냈지만 대중교통수단이 끊겨 귀가하지 못한 사람들의 인산인해, 차산차해속에서 간신히 맨해튼 표정을 전했다.

이제 집사람과 아이들이 걱정이 된다. 초는 고사하고 플래시도 없을 텐데. 통화가 안 된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다. 불빛이 있다. 다행이다. 용감한 집사람[?]이 재빠르게 움직여 초와 물, 빵 등을 사왔단다. 한숨 돌렸다. 이튿날인 8월15일 아침 8시 20분께 '거짓말처럼' '집나갔던' 전기가 돌아왔다.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른다. 그러나 인터넷과 TV방송은 여전히 먹통이다.

오후5시와 5시 반 교포들은 큰 피해가 없다는 소식을 전했다. 아직도 음질이 엉망이다. 집에 900MHZ 무선전화만 있던 나는 상점으로 달려가 8불99전짜리 유선전화를 하나 샀다. 보다 좋은 음질을 위해서…. '한국에서 올 수는 있지만 한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공항'이라는 케네디 공항에 내린지 29일째, 갑자기 들이닥친 19세기로의 타임머신 여행은 이렇게 끝을 맺었다. 70년대에나 미국이민이지, 21세기에는 더 이상 메리트가 없다는 생각이 확신으로 변하려 한다. 하지만 건강한 시민정신이 있기에 그나마 미국사회는 느리지만 발전하고 진화한다.

해외연수기 -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

과학적 분석과 장점 키우기로 생산성 향상을

박 성 호 (DMB추진팀장)

미 플로리다 주의 수도 탤러해시에 있던 집에서는 한국 유학생들과 미국인 친구들이 함께 모여 공부와 문화 등 많은 얘기들을 나눴다.

"조직원들의 행동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장점을 강화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인다." 필자가 1년간 해외 연수를 통해 배운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다. 과학적인 행동분석, 장점 키우기, 생산성 높이기는 언뜻 보면 전혀 새로울 게 없다. 조직 생활이란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기초적인 개념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초보적인 아이디어들이 언론조직 현실과 맞닥뜨려지면 결코 간단하지 않은 개념들이다.

과학적인 행동분석이란 조직원들의 행동과 예상되는 결과를 측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취재기자를 예로 들어보자. 어느 기자의 기사 생산량이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자별 기사 생산량에 대한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수집되어야 한다. 또 기사 출고량이 적은 이유를 정확히 집어내야 한다. 원인으로는 기자의 열성 부족, 기사 이외의 과도한 업무부담, 시청자로부터의 반응 부족 등등이 있을 수 있다. 기사부족에 선행하는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아울러 현재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기록 또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누가 이런 사정을 몰라서 실행에 옮기지 않느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다. 기사를 어떻게 단순한 길이나 편수로만 평가할 수 있느냐는 게 흔한 반응이다. 기자의 생산물은 간단한 잣대로 재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들이 많이 들려왔다. 취재를 해본 사람으로서 이런 주장에는 상당한 설득력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기자들의 기사 출고량과 특종 건수 등을 일정 기간 이상 기록해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면 어떤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를 다시 시청률과 광고수입 등과 비교하면 통계적인 상관관계가 발견될 수도 있다. 측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현상들을 최대한 측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 원광석에서 금맥을 발견하듯 그 무엇을 찾아내고 특히 24시간 뉴스에서 고유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확인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 장점 키우기는 직원들의 사기를 고려한다는 명분아래 보너스를 두둑이 주고 많은 상을 나눠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렇다고 신상필벌이란 원칙만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상을 줄 때에는 조직원의 행동과 반드시 연동돼야 할 것이다. 상을 주더라도 다른 조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성과에 대한 변별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두다 보상을 받는다면 정말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조직원들은 상대적인 불만을 갖게 되고 결국은 조직의 권위에도 손상이 가는 것이다. 장점 키우기에서 또 중요한 점은 조직원의 성과를 인정하는 쪽으로 생산성 향상을 꾀하라는 것이다. 명령과 지시, 그리고 목표설정을 통해서 기대성과를 높일 수도 있다. 그러나 조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경영을 통해서 생산물을 늘리는 방안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게 학문적인 연구결과로 나와 있다.

학자들의 연구논문 몇 편으로 언론사의 특성에 맞는 생산성 관리 방안이 쉽게 나오리라고는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료에 근거한 행동 측정과 성과관리를 추구하면 미래에 닥쳐올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한 첫 걸음으로 조직원의 행동 분석을 위한 설문 조사, 기사 생산물의 데이터베이스 화 (단순한 집적이 아닌 분석을 위한 데이터화), 장점을 강화하기위한 프로그램의 설계와 효과 분석 등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해외연수기 - UNC,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저널리즘 스쿨

'공부하는 저널리스트' 필요성 절감

이 귀 영(신사옥추진팀장)

2002년 8월, 미국 동남부 노스캐롤라이나 주 채플힐 시에 위치한 U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저널리즘스쿨 객원연구원(Visiting Scholar)으로서 나의 미국생활은 시작됐다. 리처드 콜 학장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나는 정기적인 교직원 미팅에 초대됐으며 교수연구동에 개인연구실을 제공받는 등 제법 대접을 받았다. 내가 참여한 '메디컬 저널리즘' 프로그램은 미국 내 대학으로는 유일하게 개설된 스페셜 프로그램이다. 디렉터인 톰 린덴교수는 예일대 의학박사 출신으로 캘리포니아지역에서 10여년동안 의학전문기자로 활동했으며 의학과 저널리즘을 학문적으로 접목시킨 장본인이다.

첫 학기, 나는 메디컬 저널리즘을 비롯해 두 과목을 수강하면서 영어의 장벽 앞에 허우적댔다. 열명안팎의 학생들이 토론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대학원 코스여서 아무런 준비 없이 수업에 임했다가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기 십상이었다. 더욱이 객원 연구원이자, 직업 기자인 나로서는 수업내용에 대해 교수로부터 코멘트를 요청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때문에 교수가 추천한 책과 논문, 신문기사와 밤새 씨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래도 미국학생들의 빠른 토론을 따라잡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실용학문답게 저널리즘 강의에는 실기가 따랐다. 현장취재를 비롯해 TV리포트 스크립트, 피쳐스토리(feature story), 칼럼, 에세이 등 한 학기에 5-6편의 과제(assignment)가 주어졌다. UNC종합병원 응급의학과 간호사의 하루를 피쳐스토리로 작성하는 과제가 떨어졌다. 녹음기로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고 집에서 듣고 또 들어가며 취재내용을 정리했다. 응급실에서의 바쁜 일과를 스케치하며 그녀의 꿈과 소명감을 담아냈다. 린덴교수는 내 글을 피쳐스토리의 사례로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도록 권유했다.

또 다른 에세이는 최근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폐경기 여성의 호르몬 요법(HRT)과 유방암과의 상관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16년 동안 호르몬요법을 사용하다 결국 암으로 사망한 여성의 사례를 찾아낸 뒤 미 국립보건원(NIH)의 연구논문과 책, 신문기사를 참고해 HRT의 부작용을 경고했다. 지도교수는 내 글이 명쾌한 주제의식을 담고 있으며 언어적 한계를 극복하는 열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칭찬해주었다. 그리고는 "You're a very fast learner!"라고 토를 달아주었다.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이라크전쟁이 발발하면서 각 채널에서 여성 저널리스트들의 눈부신 활약은 내게 경이로움을 안겨주었다. NBC, ABC, NBC, 그리고 CNN과 FOX 등 채널마다 백악관에서부터 펜타곤, 그리고 전장을 누비며 여성들은 TV뉴스의 중심에 서 있었다. 학교에서 만난 USA투데이의 울밍거 기자는 여성이 전체 종사자의 40%를 넘어섰지만 절반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의 현실과 많은 비교가 됐다.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점은 미국 내 저널리즘 스쿨 교수의 절반이상이 저널리스트 출신이라는 점이다. UNC에서 만난 데일이란 친구도 15년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방송기자 생활을 한 뒤 나이 50에 이르러 교수가 되기 위해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미국에서 저널리스트 출신이 교수가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학생들 또한 현장경험을 지닌 교수를 절대 선호한다. '방송저널리즘'을 강의하는 터글 교수는 나와 같은 저널리스트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했다.

중국 엔터테인먼트 사업 진출기

베이징 기자회견 쇼?

"끄웨이찌저통런 따자하오 !"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경 화베이 호텔 3층 홀을 가득 메운 기자들 앞에서 서투른 중국어로 말문을 열었다. "YTN은 한국의 영향력 있는 언론 매체 가운데 하나로 '한국의 CNN'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연예부 기자들 앞에 서서 YTN을 소개하는 동안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 내렸다. 뜨거운 조명도 조명이거니와 예상을 뒤엎은 기자회견 방식은 그동안 뉴스 생중계 경험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대형 멀티비전의 화려한 영상을 배경으로 무대 중앙에 서는 순간 여기저기에서 플래시가 터졌다. '클론'의 구준엽을 연상시키는 패션모델 출신의 빡빡머리 MC의 소개로 마이크를 손에 쥐자 ENG 카메라들이 경쟁하듯 눈을 부라리며 다가왔다. 미리 공들여 준비한 원고는 무용지물, 원고를 슬그머니 허리 뒤로 감췄다. 원고를 무시하고 애드리브가 이어지자 조선족 통역사는 연신 이마의 땀을 훔쳤다.

MBC의 인기 프로그램 "일요일 일요일밤에"를 연상시키는 스탠딩 인터뷰, 말이 기자회견이지 실상 화려한 쇼를 방불케 했고, 우리팀은 어느 틈엔가 엔터테이너 흉내내기에 마음이 바빠졌다. 함께 무대에 선 전범석 PD는 YTN의 프로그램 제작 능력과 중국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잠재성을, '여행스케치'의 가수 조병석씨는 자신의 14년간 국내 활동 경력과 한류 가수들의 경쟁력을 잔뜩 치켜세웠다. 20여분간의 이색 회견,

YTN은 중국 매체 앞에서 첫 신고식을 무사히 마쳤다. 가화그룹이 주관한 이번 신문발표회-중국에서 기자회견을 일컫는 말-에는 북경 지역의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 50여 개 사 소속 기자 70여명이 참석했고, CCTV 제3채널과 여유 위시(해남성 위성방송) 등을 통해 중국 전역에 보도됐을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다.

이 행사에서 가화그룹은 엔터테인먼트 시장 공략을 향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고, YTN을 한국의 자랑스러운 파트너로 소개했다. YTN은 중국 미디어 시장 진출을 위해 조금씩 조금씩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가화측의 갑작스런 요청으로 지난 8월 18일 치른 신고식도 그 일환이다. SARS가 한창인 지난 5월 위험을 무릅쓰고 북경에 첫 발을 내딛은 이후 지금까지 숨 가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때로는 엔터테이너가, 때로는 비즈니스맨이 되어 14억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 끼와 감각이 떨어지면 YTN 기자 특유의 근성과 순발력으로 대응해가고 있다.

중국의 문화 산업 규모는 벌써 우리나라의 3배에 달한다. 서부 개척 시대처럼 채굴되지 않은 금광이 아직 곳곳에 숨겨져 있다. 회사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있는 '차이나 프로젝트'는 아직 인큐베이팅 단계이긴 하지만, 기대할 만한 문화사업이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숱한 우여곡절과 적잖은 진통을 겪었지만 "苦盡甘來"라는 말처럼 머지않아 옥동자를 낳는 기쁨을 맞보게 될 것으로 잔뜩 기대하고 있다. 그때 우리는 사보의 1면 탑에 1보를 올릴 것이다.

이 교 준
(중국사업팀)

YTN 뉴스 시청행태 조사 후기

설문에 응해주신 한분 한분께 감사드립니다

김 수 연
(TNS 미디어 코리아)

약 보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각 계층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일일이 사전 컨택을 통한 시간약속을 통해 이루어진 이번 뉴스시청행태 설문조사는 개인적으로 오피니언 리더들을 직접 만나 뵐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TV나 신문, 잡지 매체를 통해 접할 법한 이름의 각 계층의 오피니언 리더들에 대한 뉴스시청행태 면접 설문조사는 관공서를 시작으로, 국회, 기업체, 금융기관 및 전문직에 종사하는 각계 최 고위직에 계신 분들을 만나는 자리인 만큼 무척 두렵고 어려운 자리일 것이란 예상을 하고 조사에 착수했는데 조사 첫날부터 오피니언리더에 대한 나의 고정관념은 바뀌었습니다.

막연히 두렵고 어려울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나의 눈에 비쳐진 실제 오피니언 리더들은 대부분 여유롭고 남을 배려하며 예의와 매너가 있었으며 솔직하고 간결하게 자신들이 선호하는 케이블 채널 또는 특정 프로그램 및 장르에 대해 왜 시청하는지 그리고 왜 시청하지 않는지에 대한 분명한 시각과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사회적 신분 및 지위에 맞게 주요 이슈가 있을 경우나 사건사고가 있을 경우 이러한 방송을 신속히 접하고 계셨고 (사무실에 TV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또 뉴스를 찾아다니며 시청을 하신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케이블 채널을 통해 살펴본 장르별 선호도 조사에서 대부분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주로 시청하는 장르로는 뉴스 및 보도관련 장르를 꼽으셨고 이외에 영화, 바둑, 스포츠 및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장르를 선호하셨는데 특정 프로그램의 경우 트렌디한 소재에도 불구하고 일부 오피니언 리더층에서도 마니아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다양성에 다시 한번 놀라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지난여름 각 사회 계층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뉴스시청행태를 조사하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큰 배움과 기쁨의 시간이었음에 감사드리며 설문에 응해주신 한분 한분께 지면을 통해서나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백지연의 정보특종 - 입에서 특종을 낚다

백지연이 만나면 특종이 된다?

오 윤 정(제작1팀)

세 달 전쯤인가…. 한 스포츠 신문 기자가 날 찾아왔다. 〈백지연이 만난 사람〉의 코너 성격과 백지연 앵커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것이었다. 야마(기사의 주제)가 뭐냐고 물었다. 대답은 간단했다. 정치인들, 백지연 앞에 서면 왜 작아지는가…

〈백지연이 만난 사람〉이라면 그게 무슨 코너인가 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다. 하지만 YS의 "맹순이"를 이야기하면 아마도 '아-' 하실 것이다. 〈백지연이 만난 사람〉은 방송사상 처음으로 YS의 자택을 공개하며 눈길을 끌었고, 나라종금 로비설이 불거지면서 민주당 안희정 씨와의 인터뷰가 전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가출소년의 심정'이라는 김민석 전 의원과의 인터뷰는 그의 정계 복귀 찬반 논란을 일으켰고, 손학규 경기도지사의 대선 출마의사도 최초로 이끌어 내며 〈백지연의 정보특종〉에서 '특종의 산실' 역할을 톡톡히 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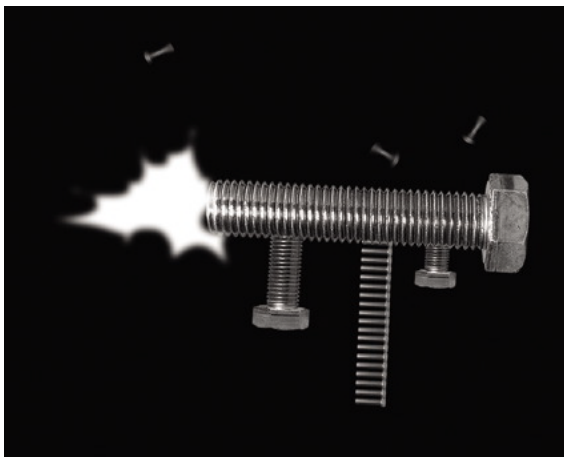
백지연이 만날 사람을 찾기 위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시사성과 저명성 두 가지를 고루 갖춘 인물을 찾는 일이다. 10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을 한 사람의 얼굴과 말로만 긴장을 이어가야 하는 인터뷰 특성상 인물의 선정은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월요 책임 PD인 호준석 선배로부터 많은 조언을 얻는다. 인물이 정해지면 전방위 정보수집에 들어가는데 취재부서에 있는 출입기자 선배들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은 YTN만의 최대 강점이다. 촬영은 대화의 긴장감을 최대로 살리기 위해 중계차를 이용하는데 방송 10분 분량을 위해 한시간 이상 녹화하는 것은 기본이요 90분 가까이 설전을 벌이기도 한다. '백지연을 만나러 오는 사람'은 한결같이 밝은 표정에 자신이 넘쳐 있지만 촬영이 끝나고 나면 저마다 다른 얼굴로 돌아간다. 웃고 왔다가 울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다.

대선 후 정치를 떠났던 김민석 전 의원을 인터뷰해 반향을 일으켰던 지난 5월의 인터뷰가 떠오른다. 큐사인이 떨어진지 얼마 되지도 않아 "지난 대선 때 철새다, 김민새다, 참 욕도 많이 드셨는데…" 당사자의 면전에서 쉽게 꺼내기 어려운 말들이 거침없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각종 일간지와 인터넷을 도배했던 '가출 소년의 심정'이라는 말을 끌어내기까지 집요한 질문이 이어졌다. 인터뷰가 끝났을 때 김 전 의원이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농담처럼 한마디 건넸다. "백지연씨 보기보다 잔인하시네요…" 이인제 자민련 총재대행을 인터뷰했을 때도 백지연 앵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내년 총선 출마에 대한 질문에 "저는 마음을 비웠습니다만…"이라는 이 의원의 대답이 끝을 맺기도 전에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허를 찌르는 한마디 "모든 정치하시는 분들이 마음을 비웠다고 하세요…" 이 의원은 촬영이 잠시 중단된 틈을 타 "아, 날도 더운데 질문이 더우니까"하고 껄껄 웃더니 하늘을 바라보고 탄성처럼 외쳤다. "Hot questions make me hot(뜨거운 질문이 나를 덥게 한다)." 촬영을 하다보면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돌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박근혜 의원 때는 하루살이가 박 의원의 눈으로 자꾸 달려들어 연거푸 NG가 났다. (백지연 앵커가 "눈에 꿀을 발라 놓으셨나 보다"고 농을 할 정도였다.) 이부영 의원 때는 징하게 울어대는 매미소리 때문에 스태프들이 나무에 돌을 던져가며 가까스로 촬영을 마쳤다.

저널리즘에서 가장 생생하고 역사적인 사실들은 바로 인터뷰를 통해 얻어진다! 학창시절 읽었던 존 브래디의 〈인터뷰의 기법〉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그런 인터뷰의 힘 덕분에 〈백지연이 만난 사람〉은 사람의 입에서 특종을 낚는다. 하지만 촘촘히 그물을 짜는 일은 제작팀 뿐 아니라 앵커, 보도국 취재기자, 중계팀 모두가 함께 한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이기에 그물을 올리는 팔뚝에 힘이 솟는다. 불끈 ^^

자랑스런 YTN 사우

'SICAF 2003' 모바일 애니메이션 특별상



올해 1월 입사해 그래픽팀 선배들의 아낌없는 총애를 받고 있는 덩치 큰 친구다. 큰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얼굴은 참 순하게 생겼다 했더니 이유가 있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만화와 애니메이션에 푹 빠져 살아왔던 것.

특히 대학 때부터는 직접 클레이 애니메이션 제작에 직접 뛰어들었고 그 때 시험 작으로 만들었던 작품으로 이번에 큰 상(서울 국제 만화전 모바일 부문 애니메이션 특별상)을 수상했다. 김진호 사우를 직접 만나봤다

Q : 서울 국제만화전이 어떤 행사인가?

지난 95년부터 열려온 국내에서 가장 큰 만화와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게임을 총괄하는 행사입니다. SICAF라고 부르는데 올해는 'SICAF 2003'이 공식 명칭입니다.

Q : 입상 분야는?

핸드폰용 동영상, 즉 모바일 애니메이션 분야입니다. 1분 30초짜린데 3등 정도에 해당하는 특별상을 탔습니다.

Q : 어떻게 출품하게 됐나?

그 과정이 조금 우스워요. 제 친한 친구에게 작품을 한 번 보여 줬더니 어디엔가 내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죠. 그리고 잊고 있었는데 9월 초에 당선 사실을 전화로 통보 받고 한참 어리둥절하기도 했습니다.

Q : 작품 제목이 'BOLT WAR' 인데 뜻하는 바는?

우선 내용은 볼트하고 너트만으로 무기를 표현한 것인데요. 볼트와 너트가 총, 대포, 탱크 등으로 변신하는데 점차 무기의 강도가 세집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화면이 백지로 변합니다.

이라크 전 발발 전에 만든 것인데 완성되자마자 이라크 전이 발발해 섬뜩했습니다. 전쟁은 한번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공멸이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Q : 언제부터 작업을 해 왔나?

처음 클레이 애니메이션에 빠져 든 것은 99년 말, 대학 3학년을 휴학하고 부텁니다. 2년 동안 그야말로 푹 빠져 지냈는데요. 친구들은 그 때 저를 보고 다들 폐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볼트워 말고도 완성된 작품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공을 많이 들여 300백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카메라와 조명, 세트 제작, 소모재료를 그 정도 돈이 들었는데 돈이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이번에 받은 상금(50만원)도 다시 애니메이션 제작에 쓸 겁니다.

Q : 앞으로의 욕심은?

우선 개인적인 욕심은 영상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기본기부터 2년 동안 닦았기 때문에 요즘 한창 기세를 떨치고 있는 디지털 애니메이션이 아닌 아날로그적인 사람 냄새나는 애니메이션을 해보고 싶습니다.

YTN의 구성원으로서도 제가 좋아하고 계속 해 왔던 작업을 바탕으로 뉴스 타이틀이나 특집 프로그램에 기존의 방송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느낌의 부드러운 그래픽을 선보이고 싶습니다.

김 진 호 (그래픽팀)

프로그램 탐방 - 밤 11시 45분 '스포츠 뉴스'

또 하나의 치열한 승부

게임&게임

프로야구 경기는 오후 6시 반에 시작해서 대체로 3시간이 조금 넘으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 시간은 통계치에 불과하죠. 요즘은 투수교체가 많아지고, 작전구사가 늘어나면서 경기 시간이 4시간을 넘길 때도 허다합니다. 이럴 땐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를 마치면 11시가 다가옵니다.

진정한 경기는 이제부터 시작인 셈이죠. 달리는 취재차 안에서 노트북을 켜고 기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대체로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경기는 끝까지 승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초안을 잡은 기사도 완전히 다시 써야 할 때가 많죠.

회사로 들어오는 시간은 11시 10분. 다른 경기 종합해서 기사 완성하고 편집해서 가까스로 테이프를 넘기는 시간은 11시 43분 남짓. 11시 45분 YTN 스포츠의 타이틀이 돌고, 리포트가 이상 없이 나가는 것을 확인하면 또 하나의 치열했던 승부는 끝이 납니다.

같은 시각, 축구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경기가 연장까지 가는 날에는 또 한 판의 볼만한 승부가 펼쳐지죠. 시간과의 싸움이야 기자라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겠죠. 그래서 스포츠 기자들 사이에는 경기를 가장 빨리 끝내는 팀이 가장 훌륭한 팀입니다.

YTN 스포츠

매일 밤 11시 45분(주말 10시 45분)에 방송되는 'YTN 스포츠'는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스포츠 경기 소식과 스타들의 동정, 그리고 경기 전망과 분석 등으로 꾸며집니다. 계절에 따라 하절기에는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동절기에는 프로농구 소식이 주를 이루구요. 최근에는 골프도 메이저 종목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죠.

요즘은 특히 미국 프로야구와 유럽 프로축구 등 국내 리그보다 한 단계 수준이 높은 해외 경기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해외스포츠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선수들의 잇따른 해외진출과 활약은 이런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YTN 스포츠는 비인기종목에 대한 스타발굴과 관심유도에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격투기가 빚어낸 신이 내린 몸매를 자랑하는 비인기종목 전담 김기봉 기자를 중심으로 하루에 한 꼭지는 비인기종목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스포츠에 대한 접근이 관람스포츠에서 직접 체험하는 스포츠로 빠르게 옮겨가는 추세여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기사화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낮의 외출

그렇다면 YTN에서 스포츠뉴스는 밤에만 볼 수 있는 겁니까? 물론 아닙니다. 6개월 전부터 한낮의 화려한 외출을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더 생생하고, 재미있게…….

'스포츠&스포츠', 낮 12시 뉴스퍼레이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인기(?)코너입니다. 전날 있었던 경기에서부터 오늘 경기에 대한 예고, 따끈따끈한 전화 인터뷰 그리고, 오전에 쏟아지는 각종 해외 경기와 영상구성까지…….

기자의 예리한 분석과 해설을 곁들여 점심식사 중인 분들에게 꽤 괜찮은 디저트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는 제가 전담으로 출연을 했구요. 이번 달에는 확인되지 않은 취재원이지만 YTN게시판에서 당당히 미남기자 랭킹 TOP 5 안에 이름을 올린 서봉국 기자가 출연을 맡고 있습니다.

이 경 재 (스포츠부)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취재기

당당한 YTN의 위력!

9월 3일 오후 2시쯤 취재차안에서 받은 뜬금없는 전화 한 통.

"여보세요, 최동호 기자이시죠? 여기 CNN인데요 인터뷰 좀 부탁하려는데요."

"인터뷰? 무슨 인터뷰죠?"

"대구 유니버시아드에서 북한 응원단이 현수막 철거할 때 현장에 계셨죠? 그 때 상황을 말씀 좀 해주세요."

"아, 예? 그러죠. (근데 영어로 안 해도 되죠?)"

대회 개막전부터 일거리를 안겨줬던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은 그 악명 그대로 북한으로 돌아간 뒤에도 일거리를 남겨놓았다.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대회 기간 내내 북측과 관계된 소동과 해프닝이 끊이지 않았지만 북한 관련 소동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현수막 철거소동이었다.

8월 28일 오후 1시쯤 경북 예천 진호국제양궁장에서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누고 대구로 출발한 북한 응원단. 이상하게도 북한 응원단을 태운 버스는 출발 직후 1km를 서행한 뒤 모두 정차해 움직이질 않았다. 이상하다는 느낌도 잠시, 갑자기 버스에서 내려 황급히 어디론가 달려가는 북한 응원단. 이것이 웬일인가? 주위엔 벌써 온통 북한 사람들뿐. 잠시 내가 북한에 와 있는 듯한 혼란스러움마저 느껴질 정도였다. 북한 응원단이 버스에서 뛰어내린 이유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얼굴이 새겨진 현수막을 철거하기 위해서였다. 주위를 둘러보니 방송사 카메라는 우리와 안동 KBS뿐. (SBS는 뒤늦게 합류) 열심히 찍고 인터뷰 한 뒤 북한 응원단 버스와 뒤섞여 현장을 출발했다.

목표는 4시 전화연결!

취재차 안에서 부장과 이양현 차장, MPC 중계팀, 서울 수신팀 등과 연락하는 사이 3시 40분쯤 MPC에 도착해 무사히 전화중계를 마치고 생생한 그림은 이양현 차장의 리포트로 방송을 타기 시작했다. 방송이 나간 직후 YTN을 찾는 전화와 사람이 몰려들면서 우리는 모두 으쓱했다. 대구 전시 컨벤션센터에 마련된 MPC앞에서 보수단체와 북한 기자단이 충돌하던 날은 MPC내 모든 TV의 채널이 YTN으로 고정된 날이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보수단체와 북한 기자단의 충돌! 그러나 대구팀의 순발력은 보수단체와 북한 기자단의 충돌을 빠르고 생생하게 YTN 화면에 담아냈다. 정확하게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보고한 전기호씨,

왕발이란 별명답게 대구 시내를 질주하며 그림을 확보한 박태근 선배! 평소에 쌓아둔 대구팀의 내공은 역시 돌발 상황에서 그 위력을 발휘했다. 35도를 오르내리던 불볕더위 속에서 대구 탈출의 그 날만을 기다리게 했던 유니버시아드. 그러나 유니버시아드의 추억을 유쾌하게 만들어준 주인공은 바로 먼 길을 달려 온 부산팀과 울산의 황보연씨, 그리고 창원의 이철근 선배였다. 언제 있을지 모를 중계와 송출을 위해 언제나 중계차를 지켰던 박주억 선배와 이승우씨!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중계차 곁을 떠나지 못하고 언제나 스탠바이를 하고 있었던 중계팀의 우직함은 마음껏 취재할 수 있고 리포트를 제작할 수 있게 뒷받침해준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최 동 호 (스포츠부)